



안전보건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안전 울타리'를 함께 만든다.

- 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산재예방 전방위 협력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4월 15일(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을 넓히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 일시 : 2026. 4. 15.(수) 14: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 참석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국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98.2%, 전체 근로자의 59.1%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공단과 중기중앙회는 현장 체감형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중기중앙회 소속 협·단체 및 회원사 대상 재정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안전보건 실증연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관련 사업의 홍보에 주력한다. 또한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수용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계한 협업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중소기업 중앙회 소속 협·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해 왔으며, 2024년 34개 협·단체 51명, 2025년 36개 협·단체 71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26,391명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제도를 몰라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양 기관은 현장 수요에 맞는 정보 제공과 산재예방 사업 참여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산재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안전은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부정책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재예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	책임자	부 장	최원일	(052-703-0751)
		담당자	차 장	김광일	(052-703-0752)

